다산포럼

올림픽 유치, 전주만의 '발전 내러티브'로 승부

김 환 영
지식 칼럼니스트
데일리인베스트 대기자

독자가 도저히 사지 않을 수 없는 책을 목표로 하면 베스트셀러가 나오지 않을까. 올림픽 유치도 다르지 않다. 전주가 2036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택되려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필요하다.

2036년 올림픽 개최지는 미정이다. 커스티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은 최근 선정 절차 재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발표했다. 불확실성이 기회다. 최근까지 인도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이집트·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지역 최초 개최'라는 상징성을 앞세운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전주만의 차별화된 가치'는 '발전(development)'이라는 키워드에서 출발할 수 있다. IOC는 단순히 저비용·고효율, 친환경 개최를 넘어서 기후위기, 불평등, 인권 등 인류 공동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올림픽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타이틀의 보유국이다. 전주는 그 역사적 발전 경험을 올림픽을 매개로 인류에 전파할 수 있다.

기후위기, 양극화, 난민, 전쟁 등 오늘날의 위기는 모두 '발전'의 실패와 연결된다. 선진국은 '재발전'이 필요하고 개발도상국은 저발전의 늪에 빠졌다. 인공지능(AI)과 고령화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주는 '올림피언 발전(Olympian Development, OD)'이라는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OD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심화·확장하며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지향한다. 올림픽 정신, 즉 탁월성·우정·존중은 '인간의 전인적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발전과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성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한다. 발전의 사다리를 선진국이 치우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지속가능성이 '미래를 빼앗지 않는 현재'라기보다는 '현재에 머물도록 강요당하는 미래의 상실'로 느껴질 수 있다.

OD는 이에 응답한다. 성장을 회피하지 않으며 스포츠· 체육·신체활동의 산업화 가능성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다. 기존의 개최 도시들이 탄소중립이나 전기차 수송 등 환경기술을 도입했다면 전주는 보다 근본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기후 솔루션을 모색할 수 있다.

IOC는 '올림픽 유산'을 중시한다. 전주는 가칭 '전주올림픽 재단(JOF)'을 설립해 스포츠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후 과학·기술 혁신과 대학 발전에 투자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대 10개를 만들자'는 비전은 어떤가. 새만금은 이 구상의 실현 무대가 될 수 있다. 환웅이 세운 신시(神市), 새로운 아테네가 새만금에서 복원되는 꿈을 꾸자.

JOF는 아직 금메달의 꿈을 이루지 못한 국가들과 태권도처럼 세계화 가능성을 지닌 전통 스포츠를 보유한 국가들과 협력해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함께 써나갈 수 있다.

이번 도전은 절대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모든 도시가 '공동 개최도시'라는 개념 아래 협력해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가 전주의 공동개최국'이라는 정신이 요구된다. 단순한 수사가 아닌 진정성과 일관된 메시지가 관건이다.

전주는 행동으로 증명하라. 당장 착수하라. '올림피언 발전(OD)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라. 아프리카 3개국, 동남아시아 2개국과 파트너십을 맺어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기후기술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라. 전주 올림픽 재단(JOF) 예비기구를 즉시 설립하고 삼성·LG 등 국내 기업과 함께 100억원 규모의 시드머니를 조성하라. 2026년 IOC 결정 이전에 이미 5개국 1만 명의 청소년들이 전주에서 스포츠와 기후과학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전주 이야기를 정교한 스토리텔링으로 세계를 설득하기 위해 디지털 포털, 다국어 뉴스레터, 글로벌 미디어 캠페인에 착수하라.

2036년 올림픽 개최지는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주 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유산이 될 수 있다. 전주와 전북에는 '홍익인간(broadly benefit humans)'의 실천, 곧 인류의 보편적 이익을 촉진할 힘이 있다.

기 고

마법의 시간창, 7~9세 아이를 위하여

한 미 경
하늘퍼블리싱 대표

"독일 그림책은 왜 그렇게 글밥이 많아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읽는 책이거든요. 학교 오기 전 글자 교육은 하지 않아요."

발도르프 교육 그림책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7세 고시'라는 신조어가 있는 대한민국은 유아기부터 글자 교육과 읽기를 강요한다. 하지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정작 초등학교 때 만화책에 빠지고 고학년이 되면 유튜브로 시선을 돌린다. 문자를 일찍 깨치더라도 문해력과 사고력은 뒤로 밀린다. 글자를 일찍 깨쳤는데 오히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왜일까?

7세 이전은 아이가 신체 장기를 형성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깨끗한 공기,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이다. 아이를 둘러싼 성인들은 존재 자체로 모범이 되고 아이는 어른을 통해 세상을 체득한다.

대략 7세에 도달하였을 때 아이는 이갈이를 함으로써 성장의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린다. 이 시기에 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이 만나는 글자가 단순 기호가 아니라 형태와 아름다움으로 이야기 되는 순간이다. 아이는 직선과 곡선을 통해 문자가 지닌 아름다움과 힘을 체득한다. 책만 읽는 어린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책읽는 습관을 가진 어린이로 키우는 데는 많은 책보다 적은 책이 좋으며 자주 읽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전 등과 같이 일정한 시간에 읽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삽화가 함께하는 그림책은 아이의 영혼 속 깊은 곳에 감동과 여운으로 자리 잡는다. 어린이가 아름다운 그림에 흠뻑 빠져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어린이가 글자를 뗀 뒤에도 부모가 충분히 읽어주는 것이 좋다.

발도르프학교에서는 1학년 때 직선과 곡선을 익히며 형태의 힘을 체험한다. 몸으로 움직이고, 공간에서 그리고, 종이 위에 옮기며 문자의 세계로 서서히 들어간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가진 본질과 친해지는 내적 체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쓰기 이전에 읽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쓰기는 온몸으로 하는 활동임에 반해 읽기는 머릿속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머릿 속으로만 하는 활동은 폐쇄적이고 가두어버리거나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다. '책만 읽는 아이'라는 이면에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신체활동이 적은 아이'라는 그림자가 있게 되는 이유다.

한편 그림 형제 동화나 한국 전래동화처럼 '성장의 이야기'는 아이의 내면 속 자양분이 된다. 9세를 통과하며 아이는 새로운 내면의 문턱에 선다. 빌리 콜린스의 시처럼 아이는 '상상의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두 자릿수의 나이로 접어드는 순간'을 맞는다. 내면 속 빛은 여전히 밝지만 무릎이 까지고 피를 흘리는 순간도 찾아오는 시기이다.

아이는 첫 상실과 자각 속에서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더더욱 7세에서 9세까지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체험을 충분히 해본 아이들은 9세 이후의 현실의 문턱도 자연스럽게 넘어설 수 있다. 조기 문해 교육이 아니라 아름다운 독서체험이 내면 속에 잘 자리잡게해준 이 시기가 아이들을 평생 '책 읽는 사람'으로 만든다. 문자가 강압과 무거운 학습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섬세하고 풍요롭게 해주고 믿음직한 표현도구로 안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린이를 사랑한다면 조기교육에 애를 쓰기보다 만 7세에서 9세, 이 첫 3년의 '마법의 시간창'을 신중하고 섬세하게 안내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

기 고

광주시, 글로벌 탄소 저감 선도 도시로

류 갑 상
동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광주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지로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온 도시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광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이제 광주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생태적 위기를 넘어 인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적 책무가 되었다. 따라서 광주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더불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저감 노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기후 대응 정책을 실행해 왔다. 시민이 참여하는 햇빛발전소 운영, 전기차 보급 확대,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그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주 시민들의 높은 참여율은 탄소중립 실현이 단순히 행정의 과제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의 목표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탄소 저감 정책은 대부분 에너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에너지 생산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네가와트(Negawatt)' 전략은 새로운 전력을 생산하는 대신, 기존 에너지 사용을 줄여 절감된 전력 자체를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이는 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 향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

광주는 도심 밀도가 높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네가와트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건물·산업 분야에서의 고효율화, 교통 부문에서의 수요 감축, 도시 구조 설계를 통한 에너지 절감 등은 모두 이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이러한 전략을 시민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바로 '탄소중립포인트제'다.

현재의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일 경우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포인트 산정 기준을 단순 절감량에서 '절약된 에너지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 시민들이 자신의 에너지 절감 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내가 절약하는 만큼 도시 전체가 이득을 본다'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에너지 효율기기 보급, 건물 리모델링, 절감 챌린지 등과 결합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전기차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핵심이 바로 에너지 네가와트 전략이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광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기후 위기 대응에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도시가 아닌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 개선 중심의 네가와트 전략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공공 부문이 선도하고 민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광주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세계적 모델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과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社 說

열돔에 갇힌 광주, 근본적인 폭염대책을

기후 온난화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된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광프리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광주의 무더위가 '대프리카' 대구에 버금가고 있다.

광주는 특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국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아 여름철이면 열기가 갇힌 채 빠져 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도심의 경우에는 외곽 지역보다 온도가 더 높은 '열섬 현상'까지 겹쳐 폭염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폭염취약 상세지도 구축 기획연구' 보고서는 광주의 심각한 폭염 수준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시켜 준다. 2019년~2021년과 2022년~2024년을 3년 단위로 여름철(6~8월) 광주지역 열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지표면 온도가 3년 사이 2~3도 상승했다. 도심과 외곽지역의 온도차는 4~6도에서 3년 만에 1~2도 정도 줄어 도심과 외곽을 막론하고 폭염이 심화됐고 차이도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습도 역시 3년 동안 4% 정도 상승해 온도에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는 2~3도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주먹구구식 설치로 인해 스마트 그늘막, 쿨링 포그, 냉방 대기공간 등 폭염 저감시설이 폭염 취약지역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폭염 취약지역은 유스퀘어와 금남로 등 버스정류장과 주요 환승 거점인데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상업지역과 공원 등에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탓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심해지는 폭염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당국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폭염 취약지역에 폭염 저감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곳곳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넓히는 방법으로 광프리카의 열돔 현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SRF 손실보전금 광주시민에 전가 안돼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SRF(가연성폐기물연료) 운영 법인의 손실보전금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광주 SRF를 운영하는 포스코이앤씨가 광주시에 손실보전금으로 2100억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를 대표사로 2013년 '청정빛고을'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판매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동 1년만에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나주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청정빛고을이 생산한 SRF를 납품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4월 광주시에 78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고 이후 6차례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손실액을 2100억원으로 늘려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과도하다며 중재 중단 요청과 함께 소송을 통해 공적 판단을 받자는 입장이지만 포스코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과 달리 한 번의 판단으로 종결하는 단심제다. 광주시가 2심제인 행정심판이나 3심제인 민사소송으로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는데도 포스코 측이 중재를 고집하는 것은 추후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에 갈 경우에 대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청정빛고을은 지난해 나주열병합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난방공사로부터 86억원을 배상받도록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발전소 운영 중단의 책임이 없는 광주시에 21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광주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관급공사 입찰에 포스코의 자격을 박탈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운영 손실액을 광주시민들에게 전가해서야 되겠는가.

無 等 鼓

3루 주자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시작된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국회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초대 내각을 빠르게 완성하려는 여당과 송곳 검증으로 존재감을 확인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공격수는 야당 의원들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각종 의혹을 파헤쳐 정치적으로 득점하기에 좋은 조건인데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후보자 검증 못지않게 이들 국회의원을 검증하는 '국민 검증'이 날카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인공은 후보자가 아닌 야당 의원들이었다. 한 의원은 2억원의 재산을 추궁하다 자신의 수십억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에 휩싸였고 본인의 병역면제 사유까지 밝혀져 'OO수괴'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체성을 의심받는 의원도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말했다가 항의를 받고 "광주민주화운동, 됐어요?"라며 웃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도심에서 자국민을 학살한 범죄를 45년이 지난 지금도 '사태'라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수'라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의원은 총리직 사퇴를 요구하며 시원한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밥에 커피를 마시고 텐트 속에서 농성 하다가 '웰빙 캠핑'이라는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

야구 격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3루타를 친 줄 알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다. 남다른 노력과 능력으로 1루와 2루를 지나 3루에 도달한 사람도 있지만 좋은 교육환경과 탄탄한 인맥 그리고 안정적인 재산 등 특수한 환경 덕분에 3루라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살펴보고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번에는 특히 '국민 검증'을 통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청문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증 열기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후보 검증과 의원 검증 사이에 누가 3루에서 태어났는지, 3루타를 쳤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유제관 제작총괄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